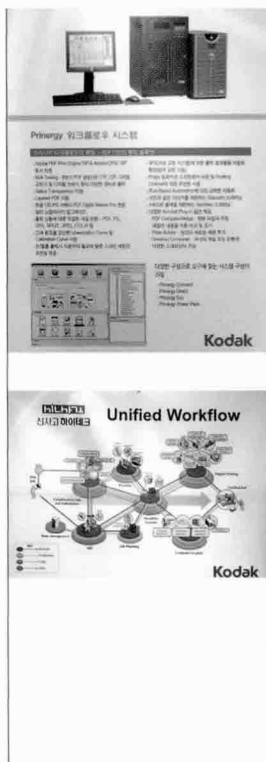




“최신 장비도입 최고품질 자부” 출력 전문 기업 신사고하이테크

신사고하이테크는 근래 급성장세를 보이며 출판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주)좋은책신사고(대표이사 홍범준, www.sinsago.co.kr)의 자회사이다. 지난 2007년 12월에 설립되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TP 및 CTF출력을 통해 각종 도서와 상업인쇄물을 전문적으로 출력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신사고하이테크는 PDF워크플로 시스템을 이용해 출력전 PDF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정으로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신 설비와 인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단 납기를 지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모토 아래 이를 수행해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설립 이전에 자체적으로 출력시스템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고 거래고객이 본사의 제작관리팀, 출판/기획팀, 외주 편집업체, 외주 인쇄업체 등 다양하고 각각의 작업환경이 다를 뿐 아니라 성격상 원거리 작업이라는 환경속에서 수정작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업



무 통일성 유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시스템 도입의 큰 관건 중 하나였다. 심사숙고 끝에 코닥GCG의 Prinergy 통합워크플로 시스템을 선택했고 안정적인 작업과 고속작업을 둘다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사고하이테크는 코닥의 PDF/JDF/CIP3/JDF 환경의 워크플로는 타사장비 및 다른 기종 장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작업환경에도 일관된 작업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신생업체인 자사의 업무에 적합했다고 말한다. 세부적으로 작업파일을 PDF로 처리해 데이터의 수정 및 변경에 용이하고, PDF Plug-In 기능으로 수정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다는 것도 이점이였다.

특히, 작업여건상 성수기에 한꺼번에 많은 작업량을 처리해야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공정 자동화를 통해 많은 양의 작업을 손쉽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 또한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로 운용가능한 점이 도입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라클 DB는 자동으로 데이터 백업 및 관리가 이뤄져 작업트래킹이 가능해 복잡한 데이터의 처리 및 데이터 리스토어 시에도 저장된 데이터만 불러내면 되므로 재작업의 필요가 없고 지적 재산권의 보안 관리를 위해서 매우 뛰어난 선택이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Preps imposition 소프트웨어를 연동시켜 터잡기 시 앞/뒷판 겹쳐보기를 통한 정확한 견당 확인이 가능한 VPS기능을 통해 완료 작업에 대한 원격 화면 교정 및 출력직전의 PDF화일 확인이 가능해 **좋은책신사고**와 같이 원거리의 모회사 및 디자인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회사에게 있어서는 전체 공정 상황 관리가 손쉽다는 것이 매력적인 점이였다.

모회사에 손색없는 실력 갖춰

신사고하이테크의 모회사인 좋은책신사고는 초·중·고 학습 참고서와 유·아동 도서를 출판하고 있는 종합출판그룹이다. 해마다 200종이 넘는 참고서를 출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등 참고서 업계 매출 및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 참고서와 유·아동 도서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33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매출액 4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좋은책신사고가 별도회사로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본사의 제작과정에서 CTP, CFP를 통한 작업량이 많다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런 환경에서도 출력회사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CTP출력만 업무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불구하고 과감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공비' 시리즈는 TV광고, 라디오광고, 버스광고 등을 집행했으며, 약 2,500여명의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우공비 매니저 활동 등을 통해 많은 화제를 모으는 등 창의적인 업무를 강조하는 회사의 분위기에 힘입은 바 컸다.

외부 업체들과의 거래 활성화로 성장 기대

신사고하이테크는 신생기업이어서 아직까지 그 인원은 몇 명을 헤아릴 정도의 소규모 기업이다. 그러나 최신 장비를 도입해 높은 생산성을 갖추고 있다. 시간당 70판까지 처리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결코 타사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쌓은 직



원들로 구성되어 가까운 시일 내로 인하우스(in-house)회사라는 한계를 벗어나 외부 고객의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사고하이테크의 이런 자신감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모 회사의 작업을 통해 다양하고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상업인쇄물 작업을 많이 다루어 온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을 수년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잘 다루어 왔다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신사고하이테크측은 앞서 얘기한 것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디자인, 출력, 인쇄 부문에서 모회사와의 탄탄한 연계망 구성 및 고객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영업 자세로 고객에게 감동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한다.

최신 장비와 효율적인 운용으로 최고 품질 제공

신사고하이테크는 좋은책신사고의 계열사이지만, 그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고 빠른 시일안에 CTP, CTF를 통해 각종 도서와 상업인쇄물을 출력하는 실력 좋은 회사로 고객사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주력 장비의 판매사인 코닥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코닥으로부터 인쇄 전 공정에 대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구매시뿐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신사고하이테크는 이미 세계적인 화두가 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적합한 판재를 사용해 트랜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신사고 하이테크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